

#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황 시 권\*

- I. 머리말
- II.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 돌장승과의 관련성
- III. 돌하르방의 재질과 위치이동 현황 분석
- IV.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의 문화재 지정방안
- V. 근래 제작 돌하르방의 체계적 관리방안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화산섬 제주도의 대표적 석상문화로 자리매김 한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과 함께 바람직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제주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돌장승과 같은 제작 동기와 목적을 지닌 조각물로서, 문헌기록에 의하면 1754년(영조 30) 金夢燿 제주목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돌하르방은 그 기능과 조형기법 등으로 미루어볼 때 장승의 한 갈래로 평가할 수 있지만, 辟邪進慶의 괴기스러운 얼굴표정이나 제례의식 등이 없는 것은 그 제작주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읍성주민과 사찰중심으로 세워진 장승과 달리 지방 목민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조형적 형태표현이 절제되고 생략된 결과라 여겨진다.

---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 박사(E-mail: tamline@hanmail.net)

원래 제주 3읍성에 48기가 설치된 돌하르방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제주 읍성 남문 1기는 분실되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 23기 가운데 원래 위치에 남아있는 것은 단 1기도 없으며,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이후 제주시내와 도 외에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다. 특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 2기는 1971년 지방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돌하르방 2기는 제주읍성 돌하르방 중에 원형보존과 작품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문화재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가민속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관광개발과 함께 도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근래 제작 돌하르방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새롭게 제작된 돌하르방의 전수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며, 새로이 제작 설치되는 돌하르방에 대하여는 ‘돌하르방 제작과 설치 규정’ 같은 행정지도방안이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돌하르방, 옹중석, 돌장승(석장승), 김몽규, 김석익, 국가민속문화재

## I. 머리말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은 화산섬 제주의 대표적인 석상문화로서 福神彌勒·童子石과 함께 널리 알려져 왔다. 心齋 金錫翼(1885~1956)이 저술한 『耽羅紀年』에 의하면 돌하르방은 1754년(영조 30) 金夢燾 제주목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1)</sup> 돌하르방 명칭은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할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다. 민가에서는 ‘돌하르방’, ‘翁仲石’, ‘偶石木’, ‘守護石’, ‘守門將’, ‘두릉머리’, ‘벽수머리’, ‘돌영감’, ‘동자석’ ‘望柱石’, ‘무성목’ 등으로

1) 『탐라문헌집』 교육자료 2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413쪽. 김석익의 편년체 역사서 『탐라기년』은 1915년 저술한 후 1918년에 발행했다. 938년(고려 태조 21)부터 1906년(광무 10)까지 제주역사를 4권에 나눠 썼다.

다양하게 불려졌다.<sup>2)</sup> 1900년대 이후 근래 문헌에서는 한자권의 영향을 받아 주로 ‘웅중’, ‘웅중석’으로 표기해왔다.

제주 3읍성의 3문 밖에 세워진 돌하르방은 모두 48기로 濟州邑城 24기, 旌義縣城 12기, 大靜縣城 12기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현재 1기가 유실되었으며, 나머지 23기는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다. 유실된 1기는 남문 밖 돌하르방 8기 가운데 하나로서 일제강점기 때 성곽이 허물어진 후 돌하르방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특히 동문 밖 돌하르방 8기는 1960년대 중반까지 원형보존이 가장 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서울 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에 2기가 도외 반출된 이후 제주대 2기, 옛 제주도청(현 제주시청) 2기, 제주민속박물관(현 제주KBS 소장) 2기가 각각 옮겨지면서 모두 해체되었다. 그나마 원형보존이 제대로 이뤄진 곳은 정의현성 돌하르방이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성곽과 성문 일부가 완전히 복원되어 서문과 남문, 동문 앞에 4기씩 재정비해 놓아 거의 제자리를 찾았다.<sup>3)</sup> 대정현성 돌하르방 또한 대부분 일제강점기부터 제 위치를 벗어나서 방치되었으나, 2018년 10월 문화재 재정비사업으로 동·서·남문지 앞에 각각 4기씩 옮겨 놓았다.

김영돈·김두하·이종철·주강현 등의 민속학자와 김유정·김정선·황시권 등의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돌하르방은 육지부 돌장승<sup>4)</sup>의 한 갈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돌장승과 마찬가지로 읍성보호와 읍민안녕을 위하여 만들어진 돌하르방은 조선후기 민중문화의 민의를 목민관이 수용해서 제작한 것으로,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문화재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를 재정립

2)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216-220쪽;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52-254쪽.

3) 디지털서귀포시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 ‘정의현성’ 참조.

4) 국가민속문화재(옛 중요민속자료, 2017년 명칭변경) 지정 때의 공식명칭은 ‘석장승(石長牲)’이나, 연구주제인 ‘돌하르방’ 명칭에 걸맞게 ‘돌장승’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해보았다. 먼저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관련성에 대해 조형특성을 간략히 살펴본 연후에, 돌하르방의 재질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파악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경우 작품성이나 규모면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돌장승에 비견하여 손색이 없지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2기 돌하르방은 도외반출 사유로 인해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울의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 2기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관할구역 밖이라는 범조항 때문에 지방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돌하르방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내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 차원에서 1980년대 이후 들어서 본격적인 관광개발과 함께 도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왜곡해 설치되고 있는 근래 제작 돌하르방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근래 만들어진 돌하르방의 전수조사가 왜 시급한 실정인지, 새로 제작 설치되는 돌하르방에 대하여 ‘돌하르방 제작과 설치 규정’ 같은 여러 가지 행정지도방안이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를 살펴나가고자 한다.

## Ⅱ.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돌장승과의 관련성

돌하르방의 크기는 각 읍성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57~238cm로 규모가 가장 크며, 정의현성 돌하르방은 120~177cm 내외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108~146cm 규모로 제일 작을 뿐 아니라 양식적인 변화도 심하다.<sup>5)</sup>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1754년 김몽규 제주목사의 지시로 세웠다는 문헌기록이 남아 있으나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다. 그러므로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두 현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1990년대 전후 뜨거운 논쟁이 일었던 돌하르방에 대한 학설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먼저 거시적인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보면



<그림 1> 제주읍성 남문 밖 돌하르방(왼쪽), 236cm, 삼성혈 입구 왼쪽 위치. 정의현성 남문 밖 돌하르방(가운데), 159cm. 대정현성 서문 밖 돌하르방(오른쪽), 138cm. 옛 보성리사무소 입구에 있던 것을 2018년 서문지 앞으로 옮겨 놓음.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베사키사원 석상들을 始原으로 삼는 남방기원설<sup>6)</sup>, 몽골 동남쪽 다리강가 지역의 석상인 ‘훈출로’에서 유래했다는 북방기원설<sup>7)</sup>이 있다. 이에 반해 토속적인 민속학적 관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성행했던 육지 돌장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육지전래설<sup>8)</sup>, 일부 돌하르방 기단석에 파여 있는 정낭 흠(구멍)을 근거로 정주목의 신성함을 표현했다는 제주자생설<sup>9)</sup>이 있다. 하지만 제작시기와 조형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남방기원설은 점차 설득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북방기원설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시대적·지역적 범위를 넓

5)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427쪽.  
 6)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고래실, 2006, 64-68쪽; 가중수·기무라 시게노부, 『한국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코리아, 2011, 55-78쪽.  
 7) 최기호,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여행』, 박문사, 2009, 113-117쪽;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청대사람』 6, 청주대학 사학회, 1994, 226-250쪽.  
 8) 이종철, 『한국민속신앙의 탐구』, 민속원, 2009, 179쪽; 주장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162-163쪽.  
 9) 현용준, 앞의 책, 261-265쪽; 홍순만, 조선일보, 1990.12.20자.

힌 새로운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돌하르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깊이 있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sup>10)</sup> 독자적인 제주자생설 또한 제주 읍성의 일부 기단에 한해 정낭 흙이 파여 있으며,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 기단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무속신앙과 결부된 聖物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돌하르방의 조형양식과 기능 등을 면밀하게 고찰해볼 때 육지 돌장승의 한 갈래임을 알 수 있다.<sup>11)</sup> 먼저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체인 얼굴부위를 크게 강조하고 하반신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조형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몸·얼굴 비례 또한 3~4등신으로 7·8등신의 이상적인 남·여 인체비례와는 달리 아주 짧은 편이다. 이는 얼굴 相好를 강조한 4등신 불상처럼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석상의 높이가 클 경우 보는 이의 시선이 밑에서 위를 향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위엄성을 갖추면서 한결 친근함이 느껴지는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그림 2>.

다만 돌하르방의 경우 辟邪進慶의 괴기스런 얼굴표정을 한 돌장승과 달리 약간 엄격한 얼굴표현과 함께 어깨와 팔, 손동작 등을 새롭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전라남도 여수 石人<sup>12)</sup> 이외에도 전남 강진 병영성 홍교 벽수<sup>13)</sup>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 우실하,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遼代 석인상」, 『몽골학』 51, 한국몽골학회, 2017, 167-193쪽;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50, 탐라문화연구원, 2015, 205-242쪽.

11)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79-159쪽.

12) 『여수시문화재도록』,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1, 35쪽.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장군이 2m 높이의 화강암 석인 7기를 제작하여 진나라의 용중석처럼 의인화시켜 곳곳에 놓아 적을 속여 승전의 길로 이끌었다고 전해온다. 현재는 1기만 여수 鎭南館 앞뜰에 남아있다. 이와 비슷한 일곱 용중(七翁仲)에 관한 이야기는 매월당 金時習(1435~1493)의 시 속에도 잘 나타난다(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탐라문화』 61, 탐라문화연구원, 2019, 72-74쪽).

13) 『강진군마을사』 병영면 편, 강진군, 1991, 306-307쪽;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병영성 홍교’ 참조.

김몽규 목사가 제주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해남현감, 평안북도 鐵山府使, 자강도 滿浦僉使, 함경북도 茂山府使, 평안북도 理山府使, 경상남도 통영의 慶尙右水使, 경기도 南陽府使 등의 보직을 맡아 국경과 해안방어로 나라를 지켰던 무인출신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사료된다.<sup>14)</sup>



〈그림 2〉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왼쪽), 1754, 225cm, 근래 제주대 정문에 있었으나 현재 제주대박물관 앞으로 옮겨놓음. 남원 실상사 대장군(오른쪽), 1725, 253cm, 전북 남원 실상사 입구 위치.

다음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돌하르방과 돌장승 모두 읍성보호나

사찰보호를 위해 세워졌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흉년 때의 救恤이나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대비한 防疫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약간 다른 점은 돌장승의 경우 민속신앙적 색채가 많이 가미돼 있는 것에 비하여 돌하르방은 실제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체비례나 얼굴표현 강조 같은 큰 틀의 공통점과는 다르게 표현기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돌장승의 경우 음양설에 근거한 周將軍·唐將軍, 대장군·여장군 같은 남녀 대칭적인 銘文이 있으나 돌하르방에는 전혀 새겨 있지 않다. 또한 돌장승에는 기단석이 거의 없음에 비취 돌하르방의 큰 기단석 일부에는 정낭 홈이 깊게 파여 있어 있다. 실제로 야트막한 이곳에다 정낭을 걸쳐 놓으면 사람이나 마소가 함부로 지나갈 수 없기에 성문 앞의 차단벽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더욱이 돌하르방에 있어서 장승제와 같은 신앙요소가 거의 배재된 것은 牧民官의 지시로 만들어진 만큼 국가적인 유교이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

14) 황시권, 앞의 박사학위논문, 8쪽.

로 여겨진다.

돌하르방에 많은 영향을 준 돌장승 중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통영시 문화동 벽수(1968), 나주 불회사 및 운흥사 돌장승(1968), 남원 실상사 돌장승(1969), 부안 서문안 당산 및 동문안 당산 돌장승(1970), 여수 연등동 벽수(1990), 장흥 방촌리 석장승(2013) 등 모두 11개소 20기에 이르고 있다.<sup>15)</sup> 돌장승의 중요한 조형 양식적 특징은 얼굴표현으로 통방울눈과 주먹코, 빠져나온 송곳니나 앞니, 戰笠形 또는 官帽形 모자가 근본을 이룬다. 이렇듯 사람의 모습을 빌면서도 왜곡과 과장을 통해 추구된 조형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도깨비나 사천왕 같은 수호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자화상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두 유형은 생각한 바를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直情적인 것과 해학적인 것, 일종의 전형성을 제시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sup>16)</sup>

전국의 약 620기 돌장승과 나무장승 가운데 돌장승은 약 260기로서 현재 약 70기가 문화재로 지정보호 받고 있다. 돌장승보다 100기나 더 많은 나무장승은 약 360기에 이르고 있으나 지정문화재는 단 3기밖에 없을 정도로 보존관리상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sup>17)</sup>

특히 제주 3읍성을 대표할 만한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돌장승의 조형 기법을 큰 틀에서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돌하르방만의 고유한 손동작과 어깨틀기, 시선처리 방향 등을 통해 역동감과 해학미를 지닌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경우는 손동작과 어깨틀기, 시선처리 방향을 정형화하지 않은 관계로 역동감이 다소 떨어지나 얼굴표정과 의복 장식표현 등을 통하여 해학미를 더해 주고 있다.<sup>18)</sup> 제주읍성 3문 앞에 세워진 돌하르방의 조형기법은 1963년 민속

15) 10년 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의 전국 일제조사 자료에 의하면 강원·경기·충북·충남·경북 등은 나무장승이 많고, 전북·전남·경남 등은 돌장승이 훨씬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16) 유흥준·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163쪽.

1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heritage.go.kr>), '당산', '장승' 참조.

18) 돌하르방은 제주 3읍성의 3문 앞길 양쪽에 2기씩 4기를 기본으로 하여 12기씩

학자 현용준의 현지조사 이후 남긴 기고문의 한 구절에도 매우 잘 나타나 있다.

(동문 밖 맨 앞의 돌하르방) 이것들의 한쪽 어깨가 조금 치켜 올려졌다 했는데, 그 어깨가 모두 같은 쪽이 아니다. 우석목 2座씩이 한 組가 되어 길 양편에 마주 세워져 있는데, 성 바깥쪽을 향해 한쪽의 것은 왼쪽 어깨가 치켜 올려져 있고, 다른 한쪽의 것은 오른쪽 어깨가 치켜 올려져 있다. 이렇게 치켜 올려진 어깨에 맞추어 그 얼굴들은 길 양쪽 것 모두가 성 바깥쪽을 향해 약간 고개를 돌린 듯한 모양으로 노려보는 듯 세워져 있다.<sup>19)</sup>

돌하르방의 대표적 조형특성은 전립형의 병거지 모자, 통방울눈과 주먹코, 일자형 귀, 꼭 다문 입술 이외에도 고유한 손동작과 어깨틀기, 시선처리 방향 등으로 형태적 역동감과 절제된 해학미를 잘 표출하고 있는 점이다. 석상의 배치는 돌장승처럼 한 쌍을 기본 삼아 한곳에 4기씩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정면이 아니라 우측이나 좌측 어깨를 약간 틀어 올리고 얼굴을 성문 밖으로 향한 시선처리는 매우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성문 밖 S자형 소로에 세워진 돌하르방 가운데 왼쪽 돌하르방은 왼쪽 어깨를 틀어 올린 채 얼굴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밖을 주시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돌하르방은 그 반대로 오른쪽 어깨를 치켜들고 얼굴을 약간 왼쪽으로 돌려 밖을 응시하는 자세를 하고 있다.

김석익의 『耽羅觀風案』<sup>20)</sup> 기록을 보면 1752년 12월 제주에 부임한 김몽규 목사는 1754년 10월까지 재직하면서 성곽방어집무실인 運籌堂과 군사훈련시설인 觀德亭을 중수하고 제주향교 이설계획을 미리 세워

---

세워졌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3곳의 성문 앞길 2군데에 모두 24기를 설치했는데, 규모·크기·조형기법 등으로 보아 돌하르방을 대표한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이후에 기술되는 ‘돌하르방의 조형특성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9) 현용준, 앞의 책, 255쪽.

20) 이 『탐라관풍안』 원문은 『心齋集』(행문회 엮음, 제주문화사, 1990)에 수록되어 있다.

둘 만큼 큰 선정을 베풀었다. 목민관으로서 읍성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다. 이러한 대공사 과정을 통해 고을백성인 民의 소원하는 바를 官이 스스로 알아차려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sup>21)</sup>, 오늘날 고유하고 독특한 돌하르방이라는 靑出於藍의 예술적 경지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 시기를 전후해 제주사람들은 大風과 가뭄에 따른 饑饉 및 전염병인 癘疫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작품성이나 규모면에서 돌하르방은 돌장승에 견주어볼 때 조선후기 지방문화를 융성시킨 소중한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마을과 읍성주민, 사찰을 중심으로 제작된 돌장승과는 달리 제작주체가 목민관이었던 만큼 신앙적인 요소나 괴기스런 표현방식을 절제함으로써 세부적인 형태표현들이 어느 정도 생략되거나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를 提高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에 대하여 추가로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제주도내 돌하르방 또한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지정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소중한 문화재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돌하르방의 ‘제자리 찾기’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 3읍성 돌하르방의 재질이 모두 다른 만큼 재질분석과 함께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들은 대부분 성문 주변이나 마을 안에 옮겨졌으나,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현재 모두 제자리에서 벗어나 제주시내와 서울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21)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248쪽.

### Ⅲ. 돌하르방의 재질과 위치이동 현황 분석

제주 3읍성에 세워진 돌하르방은 일제강점기 때 성곽과 성문이 모두 해체되면서 본래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이 가운데 정의현 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보다 위치이동이 가장 심했던 곳은 제주읍성 돌하르방들이다. 이로 인해 제주읍성 동·서·남문 입구 어귀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의 원래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으나,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뤄지면서 각 성문의 돌하르방 원위치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돌하르방의 재질이 주변에 산재한 다공질의 현무암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돌하르방은 각 성문별, 지역별로 조금씩 재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돌하르방의 제자리 찾기는 돌하르방의 원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 1. 돌하르방의 재질분석

돌하르방은 제주지역 세 읍성의 각 성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살펴볼 때 약간씩 재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마다 흰 斜長石, 검은 輝石, 노란 橄欖石의 斑晶鑛物을 다르게 함유하기도 하고 非顯晶質 또는 流狀葉理 구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sup>22)</sup>

우리나라에서 화산암이 가장 넓게 분포된 제주도는 현무암류가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이산화규소인 실리카(silica)의 함량이 적어 어둡고 검은 현무암 鎔巖流는 粘性이 낮기 때문에 분화구로부터 20km 이상 빠르게 흘러간다. 현무암 표면의 크고 작은 기공은 화산 마그마인 용암이 지표에서 급속히 냉각될 때 빠져나온 가스로 인해 생긴다. 주로 입자크

22) 황시권, 앞의 박사학위논문, 39쪽. 2014년 가을 돌하르방의 암석학적인 분석과 육안관찰을 위한 현지 재질조사 과정에는 사단법인 제주지질연구소 강순석 박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

기가 1mm 이하인 細粒質이거나 아주 작은 알갱이상태인 隱微晶質을 이룬다. 보통은 세립질의 암석입자인 石基에 비교적 결정이 큰 반정광물을 포함한 얼룩진 모양의 斑狀 조직이지만, 氣孔質 혹은 거품 많은 스킨리아(scoria)로도 나타난다. 눈으로 관찰되는 유색의 반정광물로는 휘석과 감람석, 무색광물로는 사장석이 주를 이룬다. 풍화되지 않은 현무암은 회색이나 검정색이며, 철분의 산화도에 따라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띠기도 한다.<sup>23)</sup>

제주도내 현무암류 용암의 두께는 평균 3m 정도이며 얇게는 0.3m, 두텁게는 10m에 이르기도 한다. 제주도 동부와 서부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현무암류인 솔레아이트(tholeiite)·현무암질 안산암에는 針狀 모양의 입자조직에 사장석 반정과 微粒質의 감람석 반정을 함유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분포하는 현무암류인 조면현무암·현무암질 조면안산암에는 흰 사장석과 검은 휘석반정이 다량 들어있다.<sup>24)</sup>

이런 연유로 돌하르방이 세워진 도내 3읍성의 성문터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현무암 암석들을 살펴보면, 돌하르방의 재질과 거의 같은 것임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 이는 돌하르방이 성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를 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이다<그림 3>.



<그림 3> 제주읍성 남문지 동편 성벽의 기단암석(왼쪽), 제주시 오현단 서쪽 근처, 정의현성 동문 내 민가 텃밭 암석(가운데), 표선읍 성읍리 동문 서쪽 근처, 대정현성 동문지 성벽기단(오른쪽), 대정읍 안성리 제주추사관 동남쪽 근처.

23) 황시권, 위의 논문, 40쪽에서 재인용. 화산쇄설물인 스킨리아는 주로 붉은 색을 띠는데 제주도에서는 일명 ‘송이’라고도 불린다.

24)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현무암’ 참조.

우선 제주읍성의 경우 남문지 동쪽편 오현단을 끼고 있는 성벽기단과 그 주변에는 지금도 큰 현무암 암석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동문지 또한 민가 주위를 살펴보면 흰 장식과 검은 휘석이 함유된 동문 밖 돌하르방 재질과 비슷한 현무암들이 발견된다. 이와 달리 서문지 주변은 병문천을 매립해 道路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변 암석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산지천·병문천·한천 등 용천수 하천이 흐르는 제주읍성에는 주로 흰 사장석과 검은 휘석반정을 지닌 조면현무암이 분포되어 있다. 표면기공이 비교적 작고 암석조직도 치밀하므로 얼굴표정이나 손동작 등의 세부묘사를 어느 정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비해 정의현성 돌하르방의 재질은 표면기공이 크고 흰 사장석의 반정광물을 지닌 침상장석 현무암으로, 세부적인 형태묘사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따른다. 이곳 또한 성문 주위에 분포한 현무암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동문 안의 민가 텃밭을 돌아보면 비슷한 암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서문과 남문 돌하르방 중에 각 1기는 용암의 흐름을 보여주는 유상엽리 구조를 가진 현무암으로서, 근처 오름(기생화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그림 1>에서 정의현성 남문 밖 돌하르방의 재질이 바로 이 유상엽리 구조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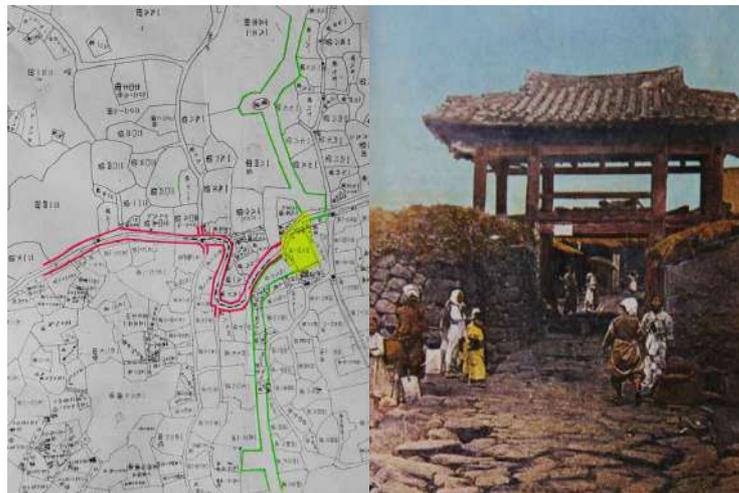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재질은 정의현성만큼 기공이 크지 않지만, 암석의 구성입자가 아주 작고 촘촘하여 맨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 비현정질 현무암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재질은 현재 남아있는 옛 성벽기단의 큰 암석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정의현성 돌하르방보다 크기는 작지만 얼굴표정과 의복 장식표현 등의 세부적인 형태표현이 다양하고 정교한 것은 제작 장인들의 기술적인 솜씨 차이도 있겠으나 이 같은 재질적 특성에서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 2.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분석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성문 주변이나 마을 안에 옮겨진 반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주시내 곳곳으로 흩어진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지금까지 약 8회에 걸쳐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초기(연도미상) 및 말기(연도미상), 1963년(현용준), 1968년(김영돈), 1977년(김두하), 1987년(김두하 재조사), 2008년(김정선), 2014년(황시권) 등으로 주로 관계당국이나 민속연구자에 의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첫 조사에서는 동문 밖 8기, 남문 밖 8기, 서문 밖 8기, 동문 안의 복수구문 4기 등 총 28기가 세워져 있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남문 밖 8기 및 서문 밖 2기에 대한 조사기록이 없고, 총 숫자도 표기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관계당국에 의한 1963년과 1968년도 현지조사부터는 본격적인 위치이동이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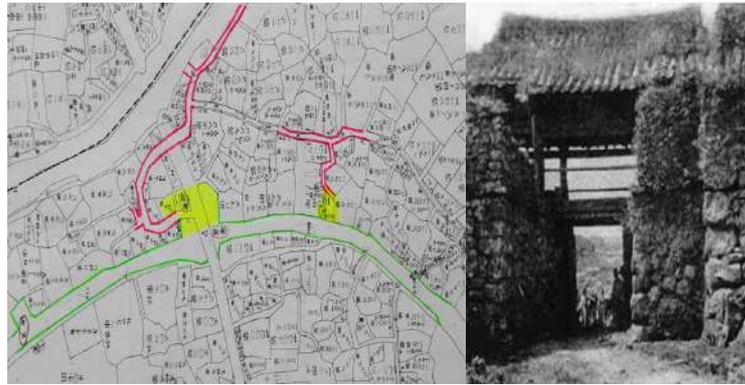
민속학자 현용준에 의한 1963년도 조사에서는 원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동문 밖 8기를 제외하고 약간씩 위치이동이 이뤄졌거나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밝혀졌다. 남문 밖 8기 가운데서 원위치는 1기만 남아있고, 삼성사 4기·제주여고 앞 2기·소재불명 1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서문 밖 8기는 관덕정 6기·소재불명 2기로 조사됐지만, 원래 8기가 세워진 다음 2기를 분실했는지 처음부터 6기만 세웠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그림 5>. 일제강점기 복수구문에 있다가 삼천



<그림 4> 일제강점기 남문지 지적도, 1940년(왼쪽) 및 남문인 정원루(오른쪽), 1918년 헬리기 이전 모습, 『대하실록 제주백년』 사진 지적도 상 S자형 소로 두 군데 4기씩 총 8기 돌하르방이 세워졌다.

서당 주변으로 옮겨진 4기 중 소재 불명 2기 이외 나머지 2기는 옛 제주대학 강당(현재 제주대박물관) 입구로 다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돌하르방 전체 숫자는 25기로 줄었고, 남문 밖 1기와 북수구문 2기 등 총 3기는 소재불명이라 했다.



〈그림 5〉 일제강점기 서문지 지적도, 1940년(왼쪽) 및 서문인 진서루(오른쪽)의 1905년 모습. 이 사진은 이해에 제주 상륙해 43일간 체류한 미국인 동물학자 말콤 P. 앤더슨이 찍은 것이다. 1940년 지적도의 오른쪽 작은 골목에 서문지 표지석이 현재 잘못 세워져 있다.

1968년도 민속학자 김영돈의 조사보고에서는 동문 밖 8기의 위치이동과 함께 북수구문 4기 중에 2기가 소재불명으로 파악돼, 소재불명이 5기로 늘어나고 남아있는 돌하르방 전체 숫자가 23기로 더 줄어들었다. 이때 북수구문 2기가 소재불명으로 파악된 것은 2014년도 황시권 조사 결과, 1963년 현용준 조사에서 삼성사 건시문으로 옮겨진 삼천서당 근처인 옛 명성호텔 앞의 2기를 중복해서 집계한 결과로 밝혀졌다. 이후 1977년과 1987년 2회에 걸친 민속학자 김두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서문 밖 8기 중에 6기가 옮겨진 관덕정에서 다시 2기가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졌음이 파악됐다.<sup>25)</sup>

우선 일제강점기 현지조사로 말미암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전체 숫자라고 하겠다. 세 성문 앞의 S자형 소로 두 군데에 4기씩 8기를 세웠다면 전체 숫자는 24기가 되어야 맞는 것이다. 하지만 첫 조사 때부터 이와 함께 북수구문의 4기를 더하여 총 28기로 기록을 하였고, 1963년도 현용준의 현지조사 직후 발표한 기고문에서는 오히려 총 32기가 세워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물론 이런 추론은 2002년 재수록 과정에서는 삭제되어 있다.<sup>26)</sup>

25) 김두하, 『벽수와 장승(수정증보판)』, 집문당, 1995, 900쪽, 도표 참조.

(…) 또 南門 자리인 現 만수당약방 앞 우물통 골목이 S形의 小路인데 石像이 하나 남아 있으니 이것들은 原位置 그대로 있는 것이 된다. 西門通엔 韓一商會 앞 골목이 S形이며 옛날 北水門이 있던 山地물 北쪽 골목도 S形의 자취가 있으니 東門 南門이 現狀態로 미루어 보아 城의 東西南北의 各門 앞의 S形 入口路 굽이마다 各各 四組씩 建立한 것으로 칠 수 있다. 그것을 是認한다면 都舍 三二座가 세워졌던 셈이 되는데, 現在 二五座가 남아 있으니 結局 一七座가 없어진 셈이 된다.<sup>27)</sup>

그러나 1900년대 초반 제작된 「제주성내고적도」<sup>28)</sup> <그림 6>에서 보듯이, 제주읍성은 동문·서문·남문만 있고 북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돌하르방의 위치 또한 정확하게 세 성문 앞에 한 쌍으로 그려져 있다. 북문이 없다는 사실은 1702년(숙종 28) 李衡祥 목사가 제작한 『耽羅巡歷圖』<sup>29)</sup> 상의 「巾浦背恩」 장면에서 그려진 제주읍성 도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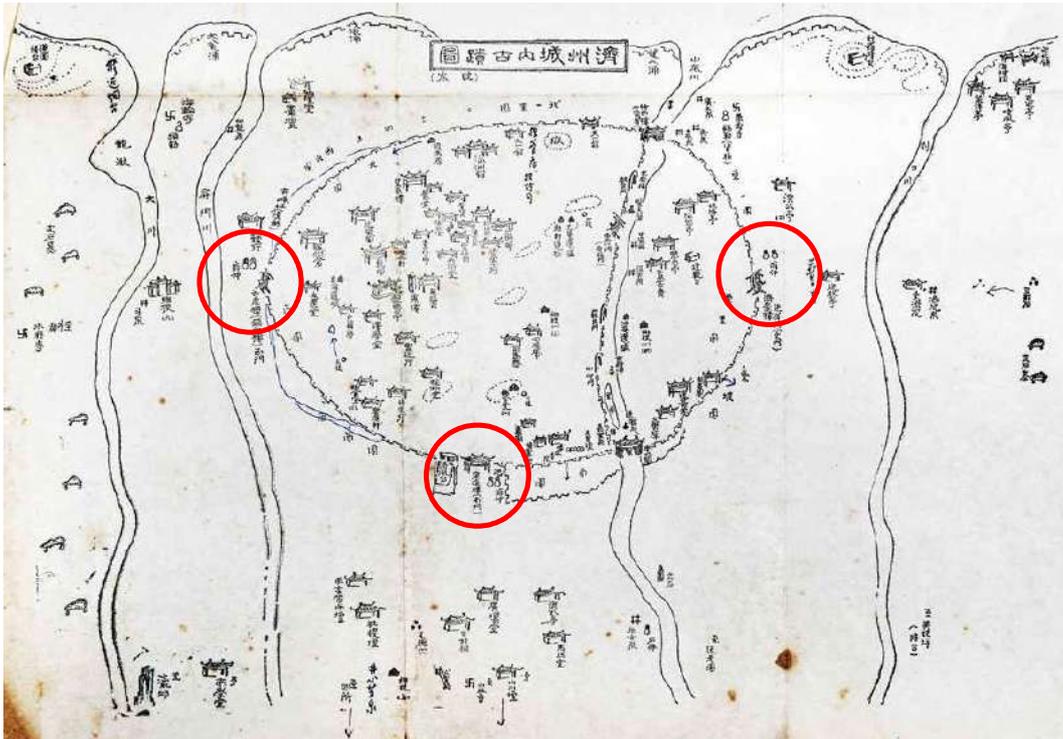
따라서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3성문 밖의 S자형 소로에 각각 4기씩 두 군데 8기를 세웠고, 전체 숫자는 24기였다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은 각 성문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다뤄 보고자 한다.

26) 현용준, 앞의 책, 257쪽.

27)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 소고」, 『제주도』 통권 8호, 제주도, 1963, 132-133쪽. 맨 마지막 부분의 ‘결국 17좌가 없어진 셈이 된다.’에서 17좌는 7좌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8) 研農 洪鍾時(1857~1936)가 직접 그린 삽화로서, 그는 1894년 제주관찰부 주사로 관직에 들어선 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만두었다. 서화에 뛰어나 교육활동을 펼치던 중 1919년 제주면장, 1931년 초대 제주읍장으로 부임하였고 1934년 78세 때 물러났다. 그의 손자 晚農 洪貞杓(1907~1991)가 제주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29)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실시한 가을 순력과 목관아에서 치른 여러 행사를 묘사한 기록화첩이다. 1703년 봄에 완성했으며, 그림 41면과 서문 2면 등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에 수묵담채이며 화첩 크기는 가로 36.4cm, 세로 56.9cm이다. 1979년 보물 제652호로 지정된 ‘李衡祥 手稿本’ 안에 제652-6호로 들어 있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탐라순력도’ 참조).



〈그림 6〉 제주성내고적도, 1900년대 초반, 홍중시 삽화. 이 그림은 1979년도 『탐라성주유사』 편찬 때 그의 손자 홍정표가 소장했던 것으로 3읍성 앞에만 ‘웅중’이라 표시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박물관

### 1)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

제주읍성 돌하르방 가운데서 동문 밖에 세워진 돌하르방 8기는 1927년 제주항 건설 매립재로 성곽이 허물어졌으나, 1960년대 중반까지 원 위치에 가장 잘 보존된 채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1914년 찍은 흑백사진과 1950년 찍은 흑백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그림 7>. 이 사진을 근거로 2008년 김정선은 이곳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학술지에 처음 발표했다.<sup>30)</sup> 읍성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앞의 돌하르방과 맞은편 뒤쪽 대각선상의 돌하르방은 1966년 10월 경복궁 수정전에 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이 개관 하면서 야외전시를 위해 1967년 9월 서울로 옮겨졌다. 나머지 2기는 제주시 용담동 옛 제주대학으로 옮겨진 후 1980년 아라캠퍼스가 신축되면서 제주대학교 정문으

30) 김정선, 「웅중석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33, 탐라문화연구원, 2008, 233-234쪽.



〈그림 7〉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왼쪽), 19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오른쪽), 1950, 흥정표 촬영, 제주대박물관 소장.

로 다시 이전해 세웠고, 지금은 새로 지은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로 또 다시 옮겨진 상태이다.

서울로 옮겨진 돌하르방의 경우 마주보는 한 쌍을 가져가지 않고 대각선상의 다른 것을 가져간 이유는 석재 흠결이 없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 있는 4기 돌하르방 기단석에는 앞쪽의 경우  및 ● 형태로, 뒤쪽에는  및 ● 형태의 정낭 홈이 나있다.<sup>31)</sup> 이와 같이 성문과 가까운 쪽에 세운 2쌍의 돌하르방 기단석을 뚫어 2개의 야트막한 정낭을 걸쳐 놓은 것은 사람들의 통행금지 목적보다는 성곽을 보호하기 위한 우마차 출입금지 의도가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1963년 현용준의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동문 바깥길이 마치 甕城처럼 약 3m 넓이 S자형 소로 길로서 두 개의 옹성굽이를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옹성굽이는 성문에서 약 35m 떨어졌고 두 번째 옹성굽이는 약 50m 더 지나서 있었는데, 각각 옹성굽이를 돌 때마다 2쌍 4기 돌하르방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었다.<sup>32)</sup>

31) 제주의 옛 가옥 입구에는 대문 대신 정주석을 양쪽에 세우고 위 아래로 정낭 홈 3~4개를 파서 정낭을 꽂아 넣어 사람이나 우마의 출입을 막았다. 민속적으로는 ‘정주목’이라 하여 신앙화 되기도 했다.

32) 현용준, 앞의 책, 1963, 132쪽. 그는 여기서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동서남북 4문 앞에 32기가 세워진 것으로 잘못 추측하는 바람에, 1982년 발표된 문기선의 학술논문에 그대로 인용되면서 잘못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해부학적인 연구」, 『논문집』 인문과학편 13, 제주대학, 1982, 191-208쪽).

동문 밖의 바깥쪽 옹성굽이에 있던 4기 돌하르방의 경우 2기는 1966년 옛 제주민속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2기는 당시 도청(현 제주시청)으로 이설하였다. 이후 옛 제주민속박물관 자리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제주민속박물관 돌하르방은 또다시 그 당시 가까이 위치했던 제주KBS방송국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른다. 1966년 직접 마차에 실어 돌하르방을 옮겼던 제주민속박물관 진성기 관장의 전언에 의하면, 돌하르방 4기 모두 기단석을 함께 옮기지 못해 나중에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延祥樓가 서있던 제주읍성 동문은 1910년 읍성철폐령에 따라서 1914년 헐렸다. 현재 제주시 일도1동 1177번지 일대인 연상루는 처음에 濟衆樓라고 불렀다. 지금도 성문 앞에 나있는 옹성굽이 길목을 따라가다 보면 돌하르방 기단석으로 보이는 암석이 담벼락 아래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 제주읍성의 식수원인 산지천 동쪽에 위치한 동문 밖 돌하르방의 재질은 주로 흰 사장석과 검은 휘석 반정물질을 고루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정리하면 동문 맨 앞 4기 가운데 2기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나머지 2기는 옛 제주대 정문(현 제주대박물관 입구)으로 옮겨졌다. 뒤의 4기 가운데 2기는 옛 제주도청(현 제주시청)으로, 나머지 2기는 옛 제주민속박물관을 거쳐 제주KBS로 옮겨졌다.

## 2) 제주읍성 서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

서문 밖 돌하르방의 경우는 위치이동 경로가 가장 뚜렷하지 않다. 1963년 현용준 조사에서 당시 서문동 한일상회 앞 골목이 S자형 소로의 자취가 남아있다고 전해질 뿐이다. 鎮西樓가 있던 서문은 현재 제주시 삼도2동 847-1번지 일대이며 처음에는 白虎樓라고 불렀다. 1914년 헐린 성문 앞의 옹성굽이 길목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 문헌기록으로 볼 때 서문 밖 돌하르방 8기 가운데 일제

강점기 말에 4기가 가까운 관덕정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4기는 북수구문 즉 현 동문로터리 근처인 옛 삼천서당과 명승호텔 앞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1954년 펴낸 淡水契의 『增補耽羅誌』에 읍성의 3문이 훼손되면서 2기는 관덕정 앞, 2기는 삼성사 입구로 옮겨졌다는 기록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된다.<sup>33)</sup> 게다가 일제강점기 초기조사가 적어도 1930년 이후로 보이는 것은 1930년 삼성혈 입구에 남문 2기를 옮겨왔다는 문서기록이 현재 삼성사재단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초기조사를 보면 남문 밖 8기는 원위치 6기와 삼성사 2기, 서문 밖 8기는 원위치 6기와 관덕정 2기로 표기되어 있다. 즉, 담수계에서 말하는 4기는 남문 돌하르방이 옮겨진 것을 뜻한다. 또한 연도미상 일제강점기 말기조사에서 관덕정에 6기가 있는 것은 남문 밖 2기와 서문 밖 4기가 최소한 2회에 걸친 시차를 두고 옮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수계의 문헌기록상 관덕정 바로 앞에 이설한 2기는 남문 밖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sup>34)</sup> 더욱이 1984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문을 열 때 관덕정에서 가져온 2기는 바로 이것으로서, 1930년대 일본인 민속학자가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수구문 근처인 옛 삼천서당 앞 2기는 1963년 조사 당시 용담동의 옛 제주대학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는데, 1980년 아라캠퍼스 신축이설과 함께 제주대박물관 입구로 다시 옮겨졌다. 명승호텔 앞 2기는 1963년 고춘호씨가 삼성사재단에 기증하여 삼성사 건시문 앞으로 옮겨세웠다.

제주목관아 서쪽에 인접해 병문천을 끼고 있는 서문 밖 돌하르방의 재질은 주로 검은 휘석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간혹 흰 장석이 많거나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도 있다. 관덕정 후원의 북쪽과 제주대박물관 바로 앞 남쪽 돌하르방처럼 기공이 작고 많지 않은 경우는 원래

33)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85쪽. 이 책은 원래 김문희, 김범준, 김정중, 김석우 등 당시 제주석학 12명이 결성한 ‘담수계가 1954년 필사본으로 발간한 제주 인문지리서이며, 제주문화원이 2004년 재발행 하였다.

34) 김정선, 앞의 논문, 235쪽.

석재가 표층에서 약간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서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정리하면 서문 맨 앞 4기는 관덕정으로 옮겨졌다. 뒤의 4기 즉 옛 북수구문 근처에 있던 돌하르방 가운데 2기는 옛 명승호텔을 거쳐 삼성혈 건시문 앞으로, 나머지 2기는 옛 삼천서당을 거쳐 제주대박물관 앞으로 옮겨졌다.

### 3) 제주읍성 남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

남문 밖 돌하르방들도 위치이동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1963년 현용준의 조사에서 남문자리였던 당시 만수당약방 앞 우물통 골목인 S자형 소로에 석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담수계 문헌기록과 같이 남



〈그림 8〉 자연사박물관 입구 오른쪽 돌하르방(왼쪽), 현재 모습. 1930년대 관덕정 앞 돌하르방(오른쪽), 유리건판, 아키바다카시(秋葉隆) 촬영,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문 밖 8기 가운데 4기는 성문들이 헐릴 때 제주 삼성혈(사적 제134호) 입구 및 관덕정(보물 제322호) 앞으로 2기씩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관덕정 2기는 1984년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축개관 당시 입구로 이설하였다<그림 8>.

또한 옛 제주여고(현 제주칼호텔) 입구로 옮겨졌던 2기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설했다가, 2011년 제주목관아 경내로 또다시 옮겨졌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점은 기단석의 정남 홈으로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림 9〉 제주목관아 내 돌하르방(왼쪽)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돌하르방(오른쪽), 기단석 홈구멍으로 미뤄 같은 한 쌍이며, 왼쪽 기단석은 거꾸로 놓였다.

의 왼편(동쪽) 1기와 제주목관아의 왼편(북쪽) 1기에만 각각 정낭 홈이 파여져 있다는 사실이다<그림 9>. 이는 홈구멍 형태로 미루어 같은 한 쌍임을 파악할 수 있다. 원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

설할 때 마주 바라보는 것끼리 옮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옆의 것을 옮긴 데서 기인한 실수임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이곳 4기는 같은 성문을 나란히 지키던 돌하르방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제주목관아의 왼편(북쪽) 돌하르방에서 기단석의 앞뒤가 뒤바뀐 것은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1963년 조사 당시 허리가 부러진 채 유일하게 원위치에 남아있던 1기는 옛 탐라목석원을 거쳐 현재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한 쌍을 이뤘던 1기는 1963년 조사 때부터 유실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定遠樓가 서있던 남문은 제주시 이도1동 1494-1번지 일대로서 남문로터리가 들어선 이후 성문 앞의 옹성굽이 길목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남문 밖 돌하르방의 재질은 흰 장석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제주목관아 내 남쪽 돌하르방처럼 검은 휘석이 많거나 엷비슷한 경우도 있다.

남문 밖 돌하르방의 위치이동 현황을 정리하면 남문 맨 앞 4기 가운데 2기는 삼성사 입구로, 나머지 2기는 옛 제주여고(현 칼호텔 자리)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이설되었다가 다시 제주목관아로 옮겨졌다. 뒤의 4

기 가운데 2기는 옛 관덕정 앞으로 이설되었다가 제주도자연사박물관 입구로, 나머지 2기 중 1기는 옛 목석원을 거쳐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옮겨졌으나 1기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분실되고 없다.

#### IV.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의 문화재 지정방안

제주 3읍성 돌하르방 가운데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매우 근엄하면서도 손과 어깨의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제부터는 제주읍성 동문 밖에 설치했던 맨 앞쪽 돌하르방 4기 중에 2기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나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돌하르방의 문화재 추가 지정방안에 관해서도 검토해볼 것이다.

현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신인 한국민속관(문교부 문화재관리국 소속) 개관은 1966년 10월 4일 서울 경복궁의 수정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듬해에 전국의 민속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각 지방으로부터 민속자료를 수집하게 된다.<sup>35)</sup> 문교부 훈령에 따라 제주도교육위원회는 제주읍성 동문 밖 맨 앞쪽 4기 가운데 2기를 1967년 9월 8일 배편(제주-목포-인천항)을 통해 서울로 운송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유물은 총 131,130점에 이르고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숫자는 8종 121건 130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곳에 소장된 돌하르방 2기는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돼 있

35) 문교부 훈령 80호, 시행일자 1967.2.11. 이 당시부터 제주도 돌하르방을 제주 특유의 석장승(우성목)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목록에는 ‘우석목’으로 돼 있다. 실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국의 장승과 솟대신앙을 현지조사한 후 학술총서를 발간할 당시, 돌하르방은 ‘제주의 석상’이란 부록으로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1997) 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10〉 서울 경복궁의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돌하르방 전경. 1967년 9월 한국민속관 야외 전시를 위해 배편으로 옮겨졌다.

지 않다.<sup>36)</sup>

그러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지 못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 2기의 문화재 지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0>. 먼저 현행 법률에 비추어 크게 두 가지 지정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 하나는 현재와 같이 지방문화재 범주 안에서 추가지정 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지정 하는 방안이다. 물론 두 가지 방안 모두 현실적 측면에 있어서 절차상 쉽고 단순한 편은 아니다.

### 1. 지방민속문화재 추가지정 방안

1971년 돌하르방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해인 1970년 8월 10일자로 「문화재보호법」(법률2233호)에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했기 때문이다.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제정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도에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문화

36)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박물관 소장품’ 참조.

재의 정의, '지정문화재' 등이 대폭 개정되었고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지방문화재' 항목은 새로 신설되었다.

제54조의2【지방문화재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문화재의 지정절차·관리·보호육성·공개 및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up>37)</sup>

따라서 위와 같이 신설된 '지방문화재'(제5장의2) 항목의 '지방문화재의 지정 등'을 규정한 제54조의2에 의거하여 돌하르방이 지정될 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던 동문 밖 2기 돌하르방은 '관할구역 밖'에 세워진 관계로 제주도내 돌하르방들과 함께 지정할 수 없었다. 이 법조문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방문화재로 추가지정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현행법상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검토 가능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생각이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

37) 6법전서편람회 편, 『(대한민국)6법전서』, 법전출판사, 1973, 1374쪽.

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이하 ⑤, ⑥항목 생략함)

[제목개정 2018. 12. 24.] [시행일 : 2019. 12. 25.] 제70조<sup>38)</sup>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민속박물관에 요청하여 서울 소재 돌하르방을 돌려받고 추가지정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돌하르방을 반환 받더라도 원위치에 되돌려 세울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설치장소가 훼손되어 당장은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개의 무게가 약 1톤이 넘는 돌하르방을 어렵게 가져와서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이는 1997년 12월 8일 제정된 「문화유산현장」의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현행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6057호) 제70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문화재 지정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주의 소중한 문화재가 엉뚱하게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 바뀌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셋째는, 문화재청에 요청하여 현행법 제70조 ①항의 규정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라는 법조문을 ‘관할구역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법률을 개정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로 추가지정 하는 방안이다. 그나마 이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차후 제주 관련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絶海孤島 제주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보다도 ‘관할구역 밖에 있는 문화재’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제주로

---

3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문화재보호법’ 참조.

부임한 행정관리들이 퇴임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 남긴 제주관련 서적이거나 유품 등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현행법상 제약 때문에 제주 관련하여 아무리 중요한 문화재 자료라 할지라도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존관리 또한 후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돌하르방이 육지 돌장승과 견주어 작품성과 규모면에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뛰어난 예술적 경지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돌하르방 일부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삼아야 한다고 일찍이 주창하였던 이는 제주의 민속학자 김영돈이다.<sup>39)</sup>

## 2.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 방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의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 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주지역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도내에서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는 모두 3개소 9점이 있다. 제주 애월말방아(제32호, 2기)는 1975년, 제주 성읍마을(제188호) 경우에는 1984년 지정되었고, 성읍마을 안에 있는 객주집·고택·대장간집 등의 5채는 1979년에 지정되었다. 특히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는 1991년 6월 4일 제주도민속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11월 30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40호로 승격지정 되었다.

육지 돌장승의 경우에도 지방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지정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전라남도 장흥 방촌리 석장승은 원래 1996년 2월 26일 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13년 6월 14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로 승격지정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이 제주 성읍마을과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장흥 방촌리

39) 김영돈, 앞의 책, 214쪽.

석장승 등의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 사례는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돌하르방 경우도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선례이기 때문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②항 각 호의 사항 생략)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시행일 : 2019. 12. 25.] 제71조<sup>40)</sup>

지금부터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의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지방민속문화재 추가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절차는 거의 비슷하지만 지정주체가 크게 달라진다. 이는 지방민속문화재의 지정주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것과는 달리 문화재청장이 지정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또한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 경우에도 지방문화재 지정절차와 똑같이 ‘관할구역’ 조항이 문제가 되나, 문화재청장이 지정주체가 됨으로써 서울시나 국립민속박물관 측에다 직접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

4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문화재보호법’ 참조.

이 경우 도내에 있는 돌하르방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을 요청하면 되며, 서울 돌하르방 2기는 문화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면 되는 것이다. 2019년 6월 말 국립민속박물관 담당 학예연구사를 직접 면담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의 문화재지정 방안에 관해 논의해본 결과,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임을 확인한 바 있다.<sup>41)</sup>

돌하르방은 제주 3읍성에 걸쳐 모두 47기가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읍성 23기(1기 분실), 정의현성 12기, 대정현성 12기 등으로 돌하르방의 크기나 조각형태 측면에서 세 지역의 특성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각 읍성 돌하르방들을 세분화시켜 제주읍성 돌하르방, 정의현성 돌하르방, 대정현성 돌하르방 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세 지역의 돌하르방 특성을 온전히 드러나게 할 수 있기에 제주 돌하르방의 다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지정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 제주 돌하르방 47기 모두를 한꺼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이를 고집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성과 희귀성 등의 가치는 충족되지만 작품성의 경우에 있어서 제주 3읍성의 돌하르방은 각 지역 및 성문에 따라 작품성이나 크기, 보존상태 등에서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돌하르방은 현재의 지방문화재 지정상황을 그대로 둔 채, 3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돌하르방 가운데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돌하르방을 포함해 상징적인 약 10기 정도를 선정해 국가민속문화재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하겠다.

---

41) 방문인터뷰, 2019년 6월 26일자.

## V. 근래 제작 돌하르방의 체계적 관리방안

이와 같이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의 문화재 지정과 더불어 돌하르방의 소중한 문화재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1980년대 이후 근래 들어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돌하르방에 대한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원래 돌하르방은 육지 돌장승처럼 작품의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주인공을 잘 보필하는 에스코트(escort)나 보디가드(bodyguard) 같은 일종의 충직한 護衛武士이다. 그러므로 사찰 경내의 사천왕과 같이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측면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사찰이나 읍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신성한 법당이나 마을에 침입하려는 악귀들을 내쫓는 수문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만들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돌하르방들은 이러한 문화재 원형을 무시한 채 정면을 당당하게 응시하는 자세로 잘못 설치되고 있다. 이는 돌하르방이 지닌 원래의 문화재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는 이들에게 문화재로서의 참모습이 크게 왜곡된 채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치 ‘惡貨가 良貨를 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그레섬(Thomas Gresham, 1519~1579)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돌하르방의 원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이들이 완전히 채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원형로터리 광장에 최근 4m 넘는 초대형 돌하르방이 세워졌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 안내문조차 없는 실정이다<그림 11>. 크기가 서로 다른 문화재의 원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제주읍성(왼쪽) 1기, 정의현성(오른쪽) 1기, 대정현성(가운데) 1기를 대등하게 제작하여 설치했다.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문관광단지 안에는 이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돌하르방들이 수십 기에 이른다. 관광단지입구 소공원에만 25기의 크고 작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재현돼 세워져 있으며 천제연폭포 관광단지 입구 매표소 앞에 약 2m의 대형 2기, 천제연폭포 주차장 입구에 특이

한 모양의 소형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문해수욕장 서쪽 더쇼어호텔 제주(옛 하얏트호텔) 입구에 약 4m의 초대형 2기, 롯데호텔 제주 입구의 동쪽정원에 약 1.5m의 중형 2기,



〈그림 11〉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원형로터리에 세워진 제주 3읍성 돌하르방 모습

플레이케이팝 공연장 앞에 약 3m의 초대형 2기, 중문해수욕장 동쪽 퍼시픽랜드 입구 동쪽에 약 2.5m의 대형 1기가 세워져 있다. 제주부영호텔 현관 입구에 있는 약 3m의 초대형 돌하르방은 특이하게 합성수지로 만들어 금박을 입힌 모습이다. 이곳 제주부영호텔의 돌하르방을 빼고 나머지 돌하르방들은 그 원형을 따르지 않고 모두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천편일률적으로 제주읍성 돌하르방들을 단순히 재현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잘못 설치하는 현상은 제주시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도청에 이르는 약 2km 주변을 살펴보면 17기 정도 돌하르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입구에는 3m 넘는 초대형 돌하르방 2기가 제주로타리클럽에 의해 세워졌으며, 건널목 안에는 소형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신제주 입구 대형교차로인 일명 해태동산에 약 3m의 초대형 2기, 제주도청 정문 앞에 약 2.3m의 대형 2기, 제주지방경찰청 현관 앞 정원에 약 2.2m의 대형 2기,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입구에 약 1.7m의 중형 2기, 제주MBC 정문 서쪽정원에 약 2m의 대형 1기 등이 세워져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빌딩 현관 앞에 약 2.8m의 대형 2기, 제주마리나호텔 주차장 동쪽 입구에 약 2.4m의 대형 1기 및 서쪽 후문에 약 2.3m의 대형 1기가 설

치되어 있다. 특히 제주마리나호텔에 세워진 돌하르방의 경우 그 맞은편에는 각각 물허벅여인상이 배치되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후문 가운데 설치된 정낭과 함께 1980년대 본격적인 제주관광시대를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라고 하겠다. 물론 여기서도 돌하르방의 원형을 따르지 않고 거의 모두 정면을 향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좌우측 어깨틀기 위치와 얼굴의 시선방향 또한 반대로 제작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제자리를 떠나 이곳저곳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설치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대부분 돌하르방은 원형을 그대로 살려 옆면으로 세워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관덕정 앞의 돌하르방 2기<그림 12>처럼 정면을 향하도록 세우는 과정에서 좌우측이 뒤바뀐 것을 여과 없이 따랐기 때문이다. 원래 돌하르방이 세워진 형태는 옆으로 곧추서서 한쪽 어깨를 들어 올리고 반대쪽의 내린 어깨방향으로 얼굴 시선방향을 살짝 돌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정면으로 세웠을 경우 얼굴의 시선처리가 바깥을 향하여 어색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좌우측 돌하르방의 위치를 일부러 바꿔서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유한 문화원형으로서 돌하르방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잘못 설치하는 형태는 앞으로 적극 지양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돌하르방의 기단석에 대한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원형보존이 가장 잘



<그림 12> 관덕정 앞에 세워진 제주읍성 서문 밖 돌하르방, 왼편(남쪽) 216cm, 오른편(북쪽) 213cm.

돼 있던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 옛 사진들을 고찰해 보면, 성문의 맨 앞에 설치된 돌하르방 4기에는 기단석에다 정낭 홈을 만들어 야트막한 2개의 정낭을 걸쳤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읍



〈그림 13〉 제주목관아 뒤뜰에 놓여있는 돌하르방 기단석

성 3문의 맨 앞에 세워진 12기의 돌하르방 기단석에는 정낭 홈이 파여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남문과 서문 돌하르방 기단석들은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어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의 현장조사과정을 통해 제주목관아 뒤뜰에 돌하르방 기단석 1기가 방치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3>.<sup>42)</sup> 이 기단석은 제주목관아 복원공사를 할 때 발굴된 여러 종류의 기단 초석들 사이에 놓여 있다. 기단석 전체 둘레 260cm, 높이 50cm, 상부의 돌하르방을 올려놓기 위한 홈 둘레는 약 180cm이다. 측면에는  자형 홈구멍이 선명하게 파여 있다. 하지만 이것과 짝을 이루는 ● 형태의 홈구멍을 가진 기단석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관덕정 앞 남쪽 돌하르방의 몸 둘레는 약 175cm, 북쪽 돌하르방의 몸 둘레가 약 168cm이므로 이것은 남쪽 돌하르방의 기단석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혈 입구 제주읍성 남문 밖 돌하르방 2기의 기단석에 대한 지중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제주 돌하르방 47기를 모두 복제하여 전시중인 곳은 제주

42) 제주목관아 발굴조사를 맡았던 제주대학교박물관에 확인해본 결과, 최근 제주대 정문에 세워있던 돌하르방 2기를 박물관 입구로 옮겨놓을 때 자료조사과정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이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기단석이 사라진 서문 밖 돌하르방 2기의 기단석을 새로 복원해 놓았다.

돌문화공원<sup>43)</sup> 이외에도 북촌 돌하르방공원이 있다.<sup>44)</sup> 제주돌문화공원의 경우 충실한 복제에 역점을 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원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나란히 배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돌하르방의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 가치를 재정립해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복제설치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관광지과 관광업체, 학교 및 교량 등에 근래 설치된 돌하르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요즘 제작된 돌하르방들이 원래의 돌하르방보다 더 진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작품크기·제작연도·제작자·설치주체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안내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일종의 행정지도방안으로서 ‘돌하르방 제작설치 규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조례나 규칙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정 크기 이상의 돌하르방을 새로 제작설치 하려는 주체는 사전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시킴으로써, 신규제작 돌하르방의 위치와 규모, 제작자, 설치주체 등에 관하여 일목요연한 데이터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돌하르방 제작자들에게 돌하르방 제작과 관련한 교육활동을 주기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제주읍성 돌하르방 위주로 단조롭게 제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나갈 수 있다.

특히 돌하르방 제작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돌하르방 제작 명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수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제주도 당국은 1991년 송종원 선생을 석공예

43)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주 테마로 약 100만평인 3,269,731㎡ 부지에 총 1,855억원을 투자해 민관협약에 의해 조성되는 공원으로서 2006년 조천읍 교래리에 개원하였다.

44)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참조. 1999년 제주 출신 젊은 예술가 5명이 제주시 북촌리 총 14,850㎡ 부지에 원형 돌하르방들을 실측 재현하여 전시중이다. 재현 돌하르방 전시공간과 창작 돌하르방 전시공간, 돌하르방 재해석 전시공간, 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장으로 선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더해 돌하르방 제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 등도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각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돌하르방의 제작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한다. 제주 3읍성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지역별로 크거나 형태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옛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그곳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을 위주로 복제해서 세우게 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을 지닌 돌하르방의 원형을 널리 알려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로의 교량 난간 끝에 획일적으로 세워진 제주읍성 형태를 지닌 돌하르방의 경우, 각 지역별 돌하르방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면 3읍성 돌하르방의 특성을 알리는데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진 원형 돌하르방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방안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성문 복원 및 돌하르방 제자리 돌려놓기 등의 실질적인 돌하르방 보존관리계획은 물론 돌하르방 홈페이지 구축, 3D 촬영 및 입체영상 제작, 관련 문헌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정의현성은 3문 복원과 함께 성곽복원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돌하르방의 제자리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대정현성의 경우에도 성곽복원과 더불어 최근에 돌하르방들을 각 성문지 앞에다 옮겨 놓았다. 하지만 제주읍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돌하르방이 뿔뿔이 흩어진 채 제자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속에 성곽이 위치해 있는 만큼 성곽복원은 거의 어렵겠지만 성문복원과 더불어 각 성문 앞에 돌하르방을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1754년 김몽규 목사에 의하여 세워진 제주 돌하르방은 육지부 돌장승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특한 예술적 경지를 새롭게 이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목민관으로서 읍성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업무를 위한 대공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고을백성인민의 소원하는 바를 官이 스스로 알아차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에 오늘날의 고유하고 독특한 돌하르방이라는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돌하르방의 재질 조사와 위치이동 현황, 조형특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아직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주 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 2기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추가 승격지정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모색해보았다. 승격지정의 이유로는 이곳의 2기 돌하르방이야말로 제주 돌하르방 가운데서 작품성이나 원형보존이 가장 잘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내 돌하르방 전체를 제주읍성 돌하르방, 정의현성 돌하르방, 대정현성 돌하르방으로 세분화 시켜서 지정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미뤄볼 때 3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돌하르방 약 10기 정도를 국립민속박물관 돌하르방과 같이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돌하르방의 보존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이미지구축 등의 새로운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주시가 개설해 운영 중인 '제주동자식' 사이트는 매우 좋은 본보기의 하나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집

- 『강진군마을사』, 병영면편, 강진군, 1991.  
 『(대한민국)6법전서』, 6법전서편람회 편, 법전출판사, 1973.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문화재청, 2005.  
 『여수시문화재도록』,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1.  
 『증보탐라지』, 담수계편, 제주문화원, 2004.  
 『탐라문헌집』 교육자료 2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심재집』, 행문회 엮음, 제주문화사, 1990.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2. 논문 및 저서

- 가종수·기무라 시게노부, 『한국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코리아, 2011.  
 김두하, 『벽수와 장승(수정증보판)』, 집문당, 1995.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고래실, 2006.  
 김석익, 오문복 외 옮김, 『제주속의 탐라-심재집』, 보고서, 2011.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김정선, 「옹중석: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33, 탐라문화연구소, 2008.  
 문기선, 「돌하르방의 미술해부학적 연구」, 『논문집』 인문과학편 13, 제주대학, 1982.  
 우실하,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요대 석인상」, 『몽골학』 51, 한국몽골학회, 2017.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유흥준·이태호, 「미술사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이종철, 『한국 민속신앙의 탐구』, 민속원, 2009.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탐라문화』 50, 탐라문화연구원, 2015.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청대사림』 6, 청주대학 사학회, 1994.
- 최기호,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여행』, 박문사, 2009.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 소고」, 『제주도』 통권 8호, 제주도, 1963.
-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탐라문화』 61, 탐라문화연구원, 2019.

### 3.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law.go.kr>
- 국립민속박물관 사이트, <http://www.nfm.go.kr>
- 디지털서귀포시문화대전, 서귀포시, <http://www.seogwipo.grandculture.net>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시, <http://www.jeju.grandculture.net>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제주동자석, 제주시, <http://www.jejudongja.go.kr>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 Revaluation of Dolhareubang as Cultural Properties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its Protection

Hwang, Si-kwon \*

This study focuses on the revaluation of Dolhareubang, the representative stone statue of Jeju Island, as cultural properties and the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its protection. Dolhareubang is a sculpture with the same motive and purpose as the landward stone Jangseung. According to the literature, it was established by Rev. Mong-gyu Kim of Jeju in 1754 (Yeongjo 30).

In view of its function and molding technique, Dolhareubang can be evaluated as a branch of Jangseung, but there is no strange facial expression or ritual ceremony because the production subjects were different. It is considered to be a result of moderation and abbreviation, made under the direction of the local governor, Mokminkwan, unlike Jangseung, which was built around Eupsung villagers and temples.

48 Dolhareubangs were originally installed in three Jeju Eupsung, but one of them on the southern gate of Jeju Eupsung was lo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one of 23 Dolhareubangs on Jeju Eupsung remain their initial positions, which have been scattered in and around Jeju City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1960s. Two of them have been owned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Seoul; When Dolhareubang was designated as local cultural properties in 1971, the jurisdiction of

---

\* Myongji University, Ph.D. in Art History

those two outside was excluded under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They have excellent preservation and workability. As reviewing the plans to add them to cultural assets,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way to designate them as national folk cultural assets.

In addition, this brings up the necessity for a systematic management into the recent production of Dolhareubangs which are built indiscriminately throughout the province along with tourism development since the 1980s. First of all, it is urgent to conduct a full-scale investigation of Dolhareubang produced recently. Furthermore, for Dolhareubang to be manufactured, administrative guidance like ‘Dolhareubang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Regulations’ should be added to ordinances or regulations.

Key-words: Dolhareubang, ONGJUNGSEOK,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Kim Mongkyu, Kim Seokik, National Folk Cultural Assets

논문투고일 2019. 12. 31

심사완료일 2020. 6. 8

게재확정일 2020. 6. 16